

[사회]

‘사람 잡는’ 인공 폭포

무등경기장 인근 조성 ‘서석대 폭포’ 관리 허술... 눈병 잇따르고 추락 위험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인근 ‘두물머리 나루’에 조성된 ‘서석대 폭포’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물높이를 즐기던 초등학생들의 눈병이 잇따르고, 폭포 높이가 5m나 되는데도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

광주시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서석대 폭포’는 높이 5.1m, 길이 40m 크기로 무등산 서석대의 주상절리(柱狀節理)를 형상화한 것이다. 시는 이곳에 100t의 수돗물을 공급해 인공 폭포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13일 시운전에 들어간 이곳에는 매일 200~3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무더위를 식히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폭포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폭포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돗물이 매일 새롭게 공급되지 않고, 재사용되고 있어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에게 눈병을 옮기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김광호(11·효광초 6년)군은 “지난 18일 낮 친구들과 폭포에서 물놀이를 한 후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통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높이 5.1m에 달하는 폭포 정상에 암벽등반 하듯이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고 통제하는 관리인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은지(12·효광초 6년)양은 “폭포 폭대기에 올라가던 중 유리조각에 손을 긁혀 상처를 입었다”며 “많은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고 있지만, 누가 이를 말리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당분간 수돗물을 폭포수로 사용하고, 내년부턴 하류에서 끌어온 10만톤 중 일부를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유사석유 사용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28일부터 단속

오는 28일부터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체 유통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확인처럼 유통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를 쓸 경우 사용량과 빈도에 따라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50%까지 할증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자부는 시행일인 28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첨가제 등의 이점으로 팔리는 유사 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남뉴스

학원 수강료 9월부터 현실화

방학중 수강료 과다인상 단속

교육부가 학원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기 교육부 평생학습국장은 19일 “수강료 정의와 범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논란이 많아 수강료를 객관화할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인건비·감가상각비·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검토해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강료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학원 등을 중심으로 학원 수강료가 표준 경비에 따라 다소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가 시행되는 9월23일 이전에 수강료 표준 경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여름 방학을 맞아 각종 입시·보습학원 부담완화에 대한 집중단속 점검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원 수강료 과다인상·교육 과정에 어긋난 특별한 개설 등이며 8월 3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남뉴스

웹서버 해킹·비방글 자동 게재 프로그램 유포 해킹대회 입상 고교생 등 30명 적발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웹하드업체 S사의 안티클럽 운영자 장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속해있던 A사의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10여 만 명이 S사로 옮겨간 데 양심을 품고 유료인 S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유료 결제인증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음해 정보통신부 주최 정보보호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고교생 전모(16)군은 S사의 유료 결제인증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킹방대회에서 수상하고 해킹 관련 서적을 출간한 경력이 있는 유명 인터넷 게임업체 정보보안관리자 박모(24)씨도 S사의 웹서버를 해킹하고 S사 시스템의 취약점 등을 장씨에게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다.

이모(41)씨는 비방글을 자동 게재하는 일명 ‘도배 게시 폭탄’을 만들어 유포, 단시간에 1천여 건의 비방글이 올려지도록 했고 황모(28)씨는 S사의 관리자 비방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12차례에 걸쳐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업무방해로 S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3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남뉴스

들고 넘치겠네
흐리고 비가 온 뒤 개겠다.

7월 20일 (음 6월 7일) 전국날씨

광주	비 후 맑음	24~29℃
부산	비 후 맑음	23~28℃
대구	비 후 맑음	23~28℃
대전	비 후 맑음	23~28℃
전주	비 후 맑음	23~28℃
광주	비 후 맑음	22~28℃
대전	비 후 맑음	23~28℃
전주	비 후 맑음	23~28℃
광주	비 후 맑음	23~28℃
대전	비 후 맑음	23~28℃
전주	비 후 맑음	23~28℃
광주	비 후 맑음	23~28℃
대전	비 후 맑음	23~28℃
전주	비 후 맑음	23~28℃
광주	비 후 맑음	23~28℃
대전	비 후 맑음	23~28℃
전주	비 후 맑음	23~28℃
광주	비 후 맑음	23~28℃
대전	비 후 맑음	23~28℃
전주	비 후 맑음	23~28℃

▲해돋이 05:32 ▲해지기 19:45 ▲달돋이 11:00 ▲달지기 22:52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최저/최고	23/27	22/29	22/30	22/26	22/28	23/30



‘새싹 그리기’ 시상
‘제52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식이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세운그림유치원(원장 백희숙·왼쪽에서 두 번째)이 종합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푸른어린이집(원장 이근철·왼쪽에서 첫 번째)과 예지어린이집(원장 박인자·왼쪽에서 세 번째), 어린이나라 어린이집(원장 최봉훈·맨 오른쪽)이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병원, 광주 북구 운암동에 응급의료센터 분원 10월께 개설

조선대병원이 광주시 북구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분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프린스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독립재단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인 이번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풀가동되며, 입원실 100 병상에 임상교수와

일요일까지 천둥·번개 동반 장맛비

오늘 10~40mm 비

일요일인 오는 2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20일 광주·전남 지역은 10~40mm의 비가 오겠다”며 “오는 22일까지 비와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2.5m로 높았고, 해무(海霧)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항해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신안 대흑산도·홍도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초속 14m의 바람이 예상될 때는) 20일 오전 해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광 앞바다 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표류 선원 5시간만에 구조

여수항을 출발, 인천항으로 향해 중이던 화물선이 장마전선에서 발생한 짙은 해무(海霧) 속을 항해 중 충돌사고로 침몰했다.

19일 오전 6시50분경 영광군 안마도 북서쪽 30km 앞 해상에서 제주선적 2천663t급 케미칼 운반선 ‘에어포레스트호’(선장·이모·58)와 부산선적 1천202t급 화물선 ‘15 금진호’(선장·김모·66)가 충돌, ‘금진호’가 침몰했다.

선체 침몰 중 바다에 뛰어든 ‘금진호’ 선원 8명 중 7명은 구조됐으며 실종된 갑판장 강모(66)씨는 사고지점에서 4km 떨어진 곳까지 표류하다 5시간 만에 해경에 구조됐다.

이날 사고 해역은 짙은 해무로 시계(視界)가 100m에 불과했고, 파고는 3m로 높게 일었다.

해경은 ‘금진호’에 42t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에 방제정을 긴급 투입, 에어벤트(Air Vent·기름 주입부를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막는 장치) 작동 여부 및 기름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가장 인기 있는 마술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마술의 매력과 재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마술의 매력과 재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수강생 모집기간:
7월 20일 ~ 7월 25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536-2500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 현장조사, 손해액 산정,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합격시까지 책임지도 교육

문의: 062-528-7788

SK 생활서비스

00700 SK 생활서비스

가정청소, 세탁,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1599-3488 TEL: 070-7477-8001